"백신 접종 안심하고 받으세요"

장수군, 65세 이상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대상 백신 접종

장수군은 22일 65세 이상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더불어 이달 23~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88명에 대해서도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응 요원 첫 번째 접종자는 군민들의 의료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유봉옥 보건의료원장으로, 예진을 통해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유 원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 후 혹시 모를 이상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이상반응 대기 구역에서 30분간 경과를 지켜본 뒤 업무에 복귀했다.

유봉옥 보건의료원장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하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적극적은 백신 접종에 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장수군은 안전하고 원활한 코로나백신 접종을 위해 한누리전당에 접종센터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인력, 행정인력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접종은 분기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장수군은 22일 65세 이상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대응 요원 첫 번째 접종자는 유봉옥 보건의료원장으로 예진을 통해 접종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하며 접종 후에 나타나는 주사부위 통증, 부기,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피로감, 두통 등은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해열진통제 복용으로 대부분 호전되나 증상이 심해지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 반디장학생 신청하세요"

대학교 1·2학년에 1학기 100만원·고교진학 장학금 등 지급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이 2021년 장학생 선발 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디장학생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재수생 포함)과 2학년 재학생(복학생 포함)이다.

반디장학생에게는 1인당 1학기 100만원을 지급하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신입생 전원에게는 20만원의 고교진학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초·중·고교 재학생 중 예술, 체육, 기능 분야 특기 장학생에게는 초등학생 50만원, 중·고등학생에게는 6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이달 29일부터 4월 30일(~오후 6시)까지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으로 방문(문의 063-320-2139/2257), 또는 우편(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 이메일(diotima79@korea.kr)로 하면 되며 기준일(2021.3.1.)에 보호자 중 1인과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무주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접수 시에는 장학생 지원서를 비롯한 장학생 지원서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주민등록등본(5년 간 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주소가 다른 경우) 등의 공통서류와 반디장학생은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 최애경 팀장은 "작년에는 대학교 신입생 150여 명에게 2개 학기에 걸쳐 3억원, 관내 입학 고교생들에게 2,500만원, 특기 장학생들에게 1,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많은 주민들이 장학금 기탁을 통해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재원을 보태고 있고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만큼 올해는 100억 기금 조성을 목표로 재정운용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은 지난 2009년에 발족해 관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력 신장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해왔으며 현재 94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는 상태다.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따르면 누구나 자동이체 약정을 통해 1만원 이상 후원도 가능하다. 후원 또는 장학금 기탁 문의는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063-320-2139)으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관내 안전한 숲길 정비 지속 추진

장수군은 등산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을 돕기 위해 총 사업비 15억원 예산을 투입해 만행산을 시작으로 관내 숲길을 정비를 시작했다.

이번 정비는 장안산, 덕산계곡, 만행산, 신무산 등 총 4㎞ 구간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숲길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장안산은 2020년에 이어 연차적으로 연주마을, 밀목재, 삼거 구간 등에 노후 테크 보수, 방향표지판 교체 및 편익시설 설치로 산행의 사고예방과 재해방지를 도모한다.

덕산계곡은 기존 노후 데크를 교체하는 등 무장애 숲길로 재정비해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편리하게 수려한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민섭 산림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아진 만큼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익도모를 위하여 지속적 숲길 관리로 건강한 숲길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명품 고구마 생산 위한 우량종묘 공급

무주군이 2021년 고구마 우량종묘 생산·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 품종 보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종별 실증재배를 통한 무주 특산품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다.

무주군에 따르면 공급 품종은 4종으로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고 조기출하가 가능한 진율미(3만1,000주)와 호감미(3만1,000주), 당분이 풍부하고 입고병에 강한 풍원미(3,000주)와 단자미(5,000주)다.

군은 오는 4월 2일까지 고구마 포트묘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농가당 공급량을 확정하고 오는 5월 중순께 농업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고구마 우량묘 공급을 원하는 농가는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22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새기술 실증시험포에서 공급사업이 추진되며 공급과 함께 재배 기술 교육도 병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3단계 착공

장수군, 9월까지 12억원 투입 가온누리길 재정비·탐방로 등 조성

금강의 발원지인 장수군 뜬봉샘 일원에 3단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22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3단계는 12억원이 투입돼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가온누리길 재정비와 숲 속 흙길 탐방로, 생태계류 등이 조성된다.

군은 또 산수국, 목수국 등 수국류 식재 등 등 꽃길을 조성해 여름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군은 자연환경해설사와 수분마을 에코매니저 등 전문가 육성을 통해 생태관광지 홍보와 수학여행단 및 전북투어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환경인증 등을 추가 등록하는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마을체험과 농특산물 판매 등 주민 수익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발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장수군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는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선정돼 2015년부터 시작해 2022년 조기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황현철 환경위생과장은 "전북도 생태관광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뜬봉샘 생태관광지에서 생태를 매개로 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해 주민소득 사업과 연계하여 잘 사는 마을, 대표 생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여성 전용공간 여성활동센터 조성

7월 공사 완료·8월 기관 입주

무주군에 여성들의 전문공간으로 활용될 여성활동센터가 들어선다.

무주군에 따르면 사업비 11억9,000만원(도비 6억원 포함)을 들여 무주읍 교동1길 13에 연면적 865.92㎡, 지상3층 규모의 여성 전용공간인 여성활동센터가 마련된다.

군은 지난해까지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 오는 7월 공사를 완료하게 된다.

무주군 여성활동센터는 1층에 여성단체와 회의실 및 여성일자리센터가 들어서며, 2층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다기능센터 등이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마련된다. 또한 3층을 증축해 무주군 여성이 주축을 이루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다.

무주군의 경우 그동안 여성단체의 전용공간이 전무함에 따라 여성들의 활동폭이 위축되어 왔으나 이번 여성활동센터가 마련되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상담실을 비롯해 여성일자리센터 등 관련 기관들의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무주군에 여성들의 전문공간으로 활용될 여성활동센터가 들어선다.

이로써 오는 8월부터는 관련 여성단체들의 입주가 가능하고 여성 전용공간이 마련되면서 지역 내 여성들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앞으로 완공될 무주군 여성활동센터는 여성단체의 활동 보폭이 넓어지고 취업 및 각종 정보제공의 산실이 될 것"이라며, "무주군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활동센터 공사가 진행되면서 여성전용 공간을 희망해 왔던 무주지역 여성단체들은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공간이 들어서게 됐다면서 크게 반기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생태텃밭정원 전문가 양성

진안군은 22일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생태텃밭정원(숲밭)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마을과 마을·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에 생태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가하기 위해 실시한 전문가 양성교육이다.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은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 속에 새로운 대안으로 관심받고 있는 생태텃밭정원을 조성하여 지구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생태·환경·농업교육 체험을 계획하고 있다.

생태텃밭정원(숲밭)은 땅을 경운하지 않으며 화학농약과 화학비료, 가축퇴비를 투입하지 않으며, 씨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을 심고 큰교목(견과류, 과일나무) 작은 교목(왜성과일나무) 관목(보리수, 베리류), 초본(채소, 꽃, 허브), 지피식물(클로버, 딸기), 덩굴식물(포도, 오이, 다래), 뿌리식물(마늘, 양파, 감자)을 7단계로 심어 식물끼리 서로 조화롭게 돌보며 자라게 하는 텃밭과 정원이 결합된 개념이다.

이를 위해 마을여행 참여마을을 대상으로 지난해 공모를 통해 학동마을을 대상마을로 선정,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진행했다. /진안=우태만 기자